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19. 7. 5(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유럽

- 네덜란드, 트램 총격 용의자 범행동기 발표
 - 7.1 네덜란드 검찰은 트램 총격사건(6.3) 용의자 「괴크멘 타느시」가 도주하던 차안에 남긴 편지를 공개, 이 사건은 용의자가 “反이슬람에 맞서 신념을 지키려 한 테러범행”이라고 발표
 - * 6.3 트램 총격 사건으로 4명 사망, 「타느시」는 정신감정 예정
- 독일, 혐오표현 차단 소홀 혐의로 페이스북에 벌금 부과
 - 7.2 로이터는 독일 당국이 혐오·가짜 게시물을 차단 및 관련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SNS위법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26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

미주

- 「트럼프」, 美軍 철수 후 아프간의 對美 공격기지화 우려 표명
 - 7.1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美軍(9천명) 철수시 아프간이 안보 공백으로 인해 美 본토에 대한 공격기지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고 보도
 - *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을 ‘Harvard of terrorists’로 지칭
- 美 국무부, 발루치스탄 해방군(BLA) 국제 테러단체 지정
 - 7.2 美 국무부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에서 자국 및 중국인을 겨냥해 테러를 자행한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을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이 단체의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
 - * BLA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의 무장단체로, 파키스탄 카라치 소재의 중국 영사관 공격('18.11) 등 외국시설을 빈번히 공격

아 · 태평양

- 인니 경찰, '제마 이슬라미야'(JM) 現지도자 체포
 - 7.1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02년 발생한 발리 테러의 배후 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야'(JM)의 現 지도자 「파라 위자얀토」를 체포·수사중이라고 보도

중 동

-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독자적인 활동 금지 조치
 - 7.1 이라크 총리는 '14년부터 ISIS와 싸우기 위해 민병대 형성을 장려했으나, 민병대가 각종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며 '마피아' 같은 조직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모든 무기를 버리고 정치활동 조직이 되거나 軍을 보조하는 조직으로 남는 것을 선택토록 하는 총리령을 발표
 - * 이라크에는 30여개의 민병대가 있으며, 13~15만명의 민병대원이 활동
- 미국, 2년만에 시리아內 알카에다 기지 공습 단행
 - 7.1 현지 언론은 美 중부사령부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계획 중이던 시리아 북서부의 알카에다 교육시설과 지휘관 소재지를 공습하여 '후라스 알딘'* 지휘관 6명을 포함하여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 * '18.2월에 구성된 조직(1,800명)으로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를 계승한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HTS)과 시리아 내전에 협력

아 프 리 카

- 니제르, 軍기지 피습으로 18명 사망·4명 실종
 - 7.2 니제르 국방부는 지난 1일 서부 국경지역 이나테스 軍기지에서 자살폭탄차량 2대가 폭발하였고, 이후 이슬람 반군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무차별 총격을 가해 18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

영국 런던 연쇄 자살폭탄테러

- '05. 7. 7 英 런던 중심가의 리버풀가역 등 3개소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태비스톡 스퀘어에서 2층 버스가 폭발해 56명이 사망하고 700여명 부상
 - 경찰 수사결과, 자살폭탄테러 범인들(4명)은 전과가 없는 10~30대의 파키스탄系·자메이카系 영국 시민으로 확인
 - 테러의 목적과 배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테러사건 이후 '알-카에다'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 대테러 전문가들은 '알-카에다' 또는 연관 조직이 기존부터 써오던 수법이라고 판단, '알-카에다'를 배후로 지목
- 同 사건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중심지에서 발생, 출근시간대에 동시 다발적인 자살 폭탄테러라는 점에서 美 9·11테러와 유사

< 알-카에다(Al Qaeda) >

- (결성배경) '기지(The base)'라는 의미로 '88년 아프간 전쟁시 구소련 철수로 전쟁이 종식되자 「오사마 빈라덴」, 「알 자와히리」 등이 대서방 지하드 존속을 위해 당시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하여 결성
 - * 테러단체 지정 : UN('01.10), 미국('99.10), 캐나다('02.7)
- (활동지역) 아프간·파키스탄 접경 부족자치지역(FATA)
- (최근동향) 「빈 라덴」 死後('11.5), 中東·阿 등 추종·연계세력 중심의 분권화·지역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ISIS에 집중된 견제를 틈타 '조용한 성장' 모색 中
 - * 「빈 라덴」의 4男 「합자」 (30세)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 美 국무부 현상수배('19.2.28)
- (주요테러) '01.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테러 자행(사망 2,996명) '05.7 英 런던 지하철과 버스에서 연쇄 폭탄테러 자행(사망 56명, 부상 770명)